

국가안전대진단 본격 추진

전북도, 9월 17일까지 민관합동 기동반 운영 최근 사고발생·노후시설 등 점검

전북도가 최근 사고발생시설, 노후시설 등 1,500여개소를 점검하는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을 23일부터 본격 추진한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중앙부처, 지자체 그리고 도민들이 함께 참여해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를 살피고 신고하는 예방활동으로, 올 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자체별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후 분산해 실시한다.

도와 시·군은 건축·토목·전기·소방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안전점검 민관합동 기동반을 구성·운영해 합동점검을 23일부터 오는 9월 17일까지 26일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건축시설 등 5개 분야 1,500여 개소로, 저수지 제방 유실 등과 같은 최근 사고발생 시설과 노후시

설, 출렁다리·스카이워크·캠핑장 등 안전사고 우려시설 등을 중심으로 14개 시·군과 협업체 선정했다.

분야별 대상으로는 ▲건축시설 분야 127개소, ▲농어촌 민박 등 생활·여가 분야 364개소, ▲상·하수도 등 환경·에너지 분야 84개소,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 분야 364개소, ▲저수지 등 기타 분야 610개소이다.

특히,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방역 및 백신 접종 등 코로나 대응 주관 부서의 시설인 의료시설, 요양원 등과 시기·계절적 요인으로 3개월 이내 점검한 급경사지 등과 같은 시설은 제외해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점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한, 산사태 취약시설·저수지 등과 같이 유관 점검에 한계가 있는 대규모 시설물에 대해서 드론 등과 같은 첨단 장비를 활용, 안전 점검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각 조치하고, 보수·보강 또는 정밀안전진단 등 시간과 예산이 수반되는 시설물은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관련 정보는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시설명, 소재지, 지적사항, 조치계획, 관리주체 등에 대해 전 도민이 확인할 수 있게 공개한다.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로 전 도민이 힘든 시기이지만, 지난 광주 철거현장 붕괴와 같은 재난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른다"면서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우리 지역 곳곳을 살피고, 위험한 곳은 사전에 정비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생태관광지 대표 브랜드 네이밍 아이디어 찾아요”

전북도, 9월 10일까지 공모 접수... 적합성·창의성·홍보성·대중성 등 심사 입상자 선정

전북도가 도내 생태관광지의 대내외적 대표 이미지를 확립하고,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전북도 생태관광지 브랜드 네이밍 공모'를 개최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북도 생태관광지의 특색을 살린 독창적이면서 특색있는 이미지를 표현한 브랜드 네이밍을 선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반드시 순수 창작물로 타 공모전에서 입상, 유사작품 등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격제한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신청서를 작성해 전북도 정책소통플랫폼 '전북 소통대로'(https://policy.jb.go.kr)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23일부터 오는 9월 10일까지이며, 공모된 작품은 적합



성, 창의성, 홍보성, 대중성 등을 종합 심사해 오는 10월 중에 입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입상자 12명에게는 각 5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최종 선정된 네이밍은 향후 전북도 생태관광지를 대표하는 브랜드로써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자료와 마케팅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허전 도 환경복지국장은 "전북도 생태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번 공모에 전북 생태관광지를 대표하는 참신한 브랜드 네이밍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 및 전북 소통대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자연생태과(063-280-4177)으로 하면 된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2분기 풍수해보험료 집행

전북도가 점차 증가하는 자연재난 대비와 재난복구에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분기 풍수해보험료'를 집행한다.

도는 예기치 못한 풍수해와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상가, 공장,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온실 소유자 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료를 시·군에 교부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2분기 도내 풍수해보험료는 10억1,600만 원이며, 이중 자부담(14.2%) 1억 4,500만 원을 제외한 정부지원금은 8억 7,100만 원이다. 이 중 국비(58.1%)는 5억 9,000만 원, 도비(9.7%)는 9,300만 원, 시·군비(17.9%)는 1억8,200만 원이다.

국비는 NH농협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로 매월 직접 교부된다.

개인이 부담하는 연평균 보험료는 주택은 2,200원, 온실은 39만1,500원, 상가·공장은 2만6,800원으로 저렴한 편이다. 이는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해주기 때문이다.

아울러, 각 시·군 별도의 자체 추가 지원을 더하면 보험료의 최대 92%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재난지원금 지급 지역, 자연재해 위험개선 지구 등 재해 예방사업 실시 지역, 침수흔적도 작성 지역과 같이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재해취약

지역 주택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87~92%를 지원한다.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최근 이상 기후 현상으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지진 등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많은 도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7월까지 보험금 지급 현황은 주택의 경우 평균 867만4,000원(24건), 온실 608만7,000원(78건), 상가·공장 86만8,000원(1건)의 보험금이 피해주인에게 지급됐다.

풍수해보험의 가입방법은 일반 보험과 마찬가지로 NH농협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를 통하거나,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유호상 기자

도내 7개 시·군 농촌협약 현장 컨설팅

전북도, 10월 31일까지 농촌지역 개발 전문가 9명 2팀으로 나눠 총 14회 진행

전북도가 시·군 주도로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 방향을 수립하는 '농촌협약 현장 컨설팅'을 진행한다.

도는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를 수행기관(협력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으로 농촌협약을 준비하고 있는 도내 7개 시·군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총 14회 진행한다(지난 20일 밝혔다).

'농촌협약'은 시·군 주도로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 방향을 수립하면, 농식품부와 시·군이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투자함으로써 365생활권(30분내 보건·보육시설 접근, 60분내 문화·교육·의료서비스 제공, 5분내 응급상황대응이 가능한 생활권 구축) 조성 등 공통의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도록 설계된 제도다.

지자체가 수립한 공통의 농촌 정책 목표 및 방향에 맞춰, 중앙과 지방이 투자를 집중해 5년간 최대 국비 300억 원과 지방비를 투자, 농촌지역 생활 SOC를 확충한다.

도내에는 임실군과 순창군이 지난 7월 농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했으며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이 신규 농촌협약 대상에 선정돼 농촌협약을 추진 중이다.

또, 군산시와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장수군, 고창군, 부안군 등 7개 시·군도 농촌협약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전북도가 시·군 주도로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 방향을 수립하는 '농촌협약' 현장 컨설팅을 진행한다.

전북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 최소화·감시 최선

전북도가 도내 청소년 보호를 위해 유해환경 감시 활동을 펼친다.

도는 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하 감시단)과 함께, 무인성인용품점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준수 여부를 23일부터 9월 17일까지 4주간 집중 점검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감시단은 기존에 음식점, 편의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감시순찰 활동을 이어왔다.

하지만, 최근 무인점포 등이 늘어나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가 높아져 감시단은 처음으로 무인성인용품점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감시단은 무인성인용품점 청소년 출입금지를 위한 출입장치 설치 여부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청소년 유해물건을 판매하는 성인용품점은 청소년출입금지구역로 지정돼 있어, 업주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청소년출입을 금지해

야 한다.

무인 판매업소는 출입자 신분증을 통해 연령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업소 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청소년이 성인용품판매점을 출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과 출입 횟수 마다 3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한, 성기구 등 청소년유해물건을 청소년에게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과 건당 1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한다.

/유호상 기자

이번 농촌협약 현장 컨설팅은 농촌 지역 개발 전문가 9명이 2개 팀으로 나눠 농촌협약을 준비 중인 군산시와 익산시 등 7개 시·군에 2회씩 총 14회 진행된다.

전문가 자문단 1팀은 김현숙(전북대 교수), 김상범(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김상욱(원광대 교수), 오태이(로컬마스터 대표), 김정연(농식품부 농촌협약 TF 단장) 총 5명이 참여하고, 2팀은 손재권(전북대 교수), 이성재(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신현실(우석대 교수), 이소진(지역농업네트워크

센터장) 총 4명으로 구성됐다.

도는 이번 컨설팅이 각 지자체의 공무원과 중간지원조직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농촌협약 계획수립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형식 도 농촌협력과장은 "이번 농촌협약 현장 컨설팅이 주민여론에 전문가들의 지혜가 더해져, 보다 좋은 기본계획 수립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7개 시·군도 농촌협약에 선정 되도록 도 차원에서 힘껏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모 집	전주교육대학교·우석대·원광대 군산대·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상 담
스피치 · 긴장해소 · 면접 · 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옥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옥입니다. 저렴한 등록금,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기대합니다.		
 <p>(김양옥 교수)</p>		
<p>▷ 전담교수 주요경력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전북대학 토론과 면접 담당교수 역임 스피치자격시험 감정위원장 한국스피치,웅변협회 전북회장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 TBN 출연 및 강의자 스피치 칼럼리스트 필생교육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전주매일 부사장 		
< 각 지역별 모집 > < 누구나 학습가능함 >		
학교별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 긴장해소,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전주, 임실, 완주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전주, 완주, 진안
원광대학교(익산)	스피치&긴장해소(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익산, 논산, 강경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퍼러더업,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군산, 서원, 부안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고급,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정읍, 고창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코칭(야간)(웃음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코칭(야간)(웃음자격증)	김제, 부안
상담전화 :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야) ※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